**이름**

이지원

* **블로그나 브런치, 인스타그램 작가 계정 보유자의 경우, 활동명과 아이디, URL주소등등을 적어주세요.**

블로그 : https://blog.naver.com/jeaneylee

* **제출 글 1 PDF - 문단 배치, 연갈이, 행갈이 확인 목적**

[h6iATtF\_5\_밤은 둥글고 말이 없다.pdf](javascript:void(0);)

* **제출 글 1 워드 혹은 한글 - 텍스트 추출**

[h6iATtF\_7\_밤은 둥글고 말이 없다.hwp](javascript:void(0);)

* **제출 글 1에 대한 작가의 말 - 띄어쓰기 포함 200자**

밤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를 슬프게 했는지도 모릅니다. 힘없이 쪼그라드는 저는 밤을 만나면 편안하게 쪼그라들 수 있었습니다. 무기력했던 제게 필요했던 건 밤이 주는 위로와 공감이 아니라 낮이 주는 생기와 열정이었어요. 불편하고 아프게 알을 깨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. 낮에도 편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.

* **흙, 잔디, 아스팔트, 시멘트 중 제출 글 1과 '가장'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.**

아스팔트

* **흙, 잔디, 아스팔트, 시멘트 중 제출 글 1과 '두번째로'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.**

시멘트

* **제출 글 2 PDF - 문단 배치, 연갈이, 행갈이 확인 목적**

[h6iATtF\_16\_진주에게.pdf](javascript:void(0);)

* **제출 글 2 워드 혹은 한글 - 텍스트 추출**

[h6iATtF\_18\_진주에게.hwp](javascript:void(0);)

* **제출 글 2에 대한 작가의 말 - 띄어쓰기 포함 200자**

위로하는 방법을 조금식 배워가던 저는 매번 위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내가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건 공감 뿐일까. 그 친구에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줄 수는 없을까. 후련하게 울고난 친구를 데리고 무작정 동네 산책을 다니고 재밌는 얘기를 하며 놀았어요. 아무일 아니라는 듯이. 저와 함께할 때만큼은 웃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요.

* **흙, 잔디, 아스팔트, 시멘트 중 제출 글 2와 '가장'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.**

아스팔트

* **흙, 잔디, 아스팔트, 시멘트 중 제출 글 2와 '두번째로' 어울리는 질감을 골라주세요.**

잔디

* **작가인터뷰 - Q1. 작가님을 한 문장으로 소개해주세요! (인적사항 제외)**

알아가고 이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속을 까보면 쉬운 사람.

* **작가인터뷰 - 원하는 질문을 선택해주세요. Q2.**

글을 쓰실 때에 어디서 영감을 받으시나요?

* **작가인터뷰 - Q2. 위 질문에 대한 답 -띄어쓰기 포함 350~400자**

대화하다가 혹은 혼자 생각하다가 가장 영감이 많이 떠올라요. 흥미로웠던 사색,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차곡차곡 쌓아서 혼자만의 동굴로 들어갑니다. 동굴에 도착하기 전에 그것들은 이미 다 까먹어 버리고, 동굴에서는 소화하는 작업을 합니다. 퇴고가 반이다, 라는 말처럼 글은 다듬는 과정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. 어울리는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다듬다 보면 언젠가 그럴듯한 무언가가 탄생합니다.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더라도 잘 다듬어지고 걸러진 깔끔한 글을 보면 만족스러워요. 그리고 그렇게 퇴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가 많아요.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퇴고하다 영감이 글허리를 뭅니다. 시작이나 끝부분보다는 허리를 물 때가 많은데 이런 경우 퇴고는 할수록 늘어납니다,,

* **작가인터뷰 - 원하는 질문을 선택해주세요. Q3**

왜 글을 쓰시나요?

* **작가인터뷰 - Q3. 위 질문에 대한 답 -띄어쓰기 포함 350~400자**

방대하고 걷잡을 수 없는 생각들을 글로 정리하는 일은 퍼즐을 맞추는 일과 비슷합니다. 흩어진 조각 중에는 반짝이는 원석들이 많은데, 그런 것들을 좀 더 다듬어 주고 체계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와줍니다. 흩어진 생각들에게 일자리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을 풀어 썼다가 n번의 퇴고를 거쳐 봐줄 만한 문장이 탄생할 때 ‘이래서 글을 쓰지’ 싶어요. 소설이나 시의 경우에는 추상적인 감상이나 상상을 글자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 자체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많이 느낍니다. 그냥 이 작업 자체가 저한테는 재밌는 일이에요.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도 많이 되고요.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일기라도 종종 써보시는 것을 정말 추천합니다.

* **작가인터뷰 - Q4. 맺음말 - 띄어쓰기 포함 200자 이내 (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자유롭게 써주세요.)**

부족한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만족스럽지 않은 작품을 전시하려니 부끄럽기도 합니다. 제 글에서 어떤 것을 가져가셨는지 모르겠지만, 모쪼록 좋거나 재밌거나 아름다운 것을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위로보다는 희망을 얻어가지 않으셨을까 기대합니다. 최악을 위한 대책과 최고를 위한 희망이 함께 한다면 어떤 일이든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 믿어요.